



시사프리신문

## 강북구, 자매결혼도시 김천시, 포도·자두 판매 행사 가져...

### 시중 가격 보다 10% 절약... 당도 우수!!

강북구는 지난 30일 구청 앞마당에서 자매도시인 김천시 지역 특산물인 포도와 자두 시식·홍보·판매하는 행사를 가졌다.

구는 이날 박겸수 구청장을 비롯해, 강북구의회 유군성 의장, 구의회 위원장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아울러 김천시는 박보생 시장, 김천시의회 오연택 의장 등 김천시 주요인사들이 참석해 양 자치단체의 발전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자리에서 박 구청장은 "포도와 자두 당도가 정말 높아 놀랐다"며 "앞으로도 강북구와 김천시가 자매결혼도시로서 양 자치단체간의 교류 활동이 활발하게 이어갔으면 좋겠고, 강북구에서 큰 행사가 있을 때 시장님을 비롯하여 주요 인사를 초대하고 김천시에서 행사가 있을 때 꼭 참석해 그 자리를 빛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김천시와



강북구의 활발한 교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김천 포도와 자두는 시의 최고의 과일이고, 일조량과 기후변화가 심하지 않아 당도가 우수하다" 또 "상수원을 지하수로 정수 관리해서 물이 깨끗해 이 같은 품질 좋은 과일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같은 날 오후 1시 강북구의회 유군성 의장은 김천시의회

오연택 의장을 초청해 강북구의회 본회의장을 둘러보며 의회간의 협력을 다짐하는 등 환담의 자리를 가졌다.

김천시는 이번 행사에서 포도(거봉·캠벨)2kg, 자두 3kg, 1kg 등 4000만원 상당의 과일을 구민들에게 선보였다.

유영일기자